제8장

한국 경학사상 연구

김유곤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17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경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논문 선정 작업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와 등재 후보 학술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간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와 등재 후보 학술지를 살펴본 결과 경학에 관한 논문은 총 27편이 있었다. 경학에 관한 논문으로 선택한 기준은 유교 경전인 십삼경(十三經)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학자들의 주석을 중심으로 분석한 글로 한정하였다. 27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심대윤(沈大允) 『춘추사전속전(春秋四傳續傳)』의 탈성리학적 『춘추』 이해	한국철학논집 52	한국철학사연구회
2	김동민	서파(西陂) 유희(柳僖)의 『춘추괄례분류』에 보이는 『춘추』 범례 분류의 특징	한국철학논집 54	한국철학사연구회
3	김동민	주자의 『춘추』 주해서에 대한 비판과 변론	양명학 46	한국양명학회
4	김동민	주자의 『춘추』 해석과 그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68	한국유교학회
5	김세서리아	임윤지당의 『논어』 이해에 대한 여성철학적 성찰	한국여성철학 28	한국여성철학회
6	김용재	제주석(諸註釋)을 통해 본 『논어』 경문(經文)의 해석학적 이해[7-1](-「술이(述而)」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9	동양철학연구회
7	김유곤	『효경』과 『내칙』 해석에 나타난 윤휴의 사친지학(事親之學)의 구조와 성격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8	김인규	조선 후기 『주례』의 수용과 국가례(國家禮)(-반계 유형원의 국가례(國家禮)와 『주례』의 이념-)	퇴계학논총 29	퇴계학부산연구원
9	김정각	주희역학에서의 도통에 관한 연구	범한철학 85	범한철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0	김조영	『맹자요의(孟子要義)』에 나타난 다산의 경학관 연구	한문고전연구 35	한국한문고전학회(구 성신한문학회)
11	문창호	구룡재 백봉래의 경학 일고(－『대학』과 『중용』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2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역학의 성립과정(Ⅲ)(－이익, 신후담의 역학에서 정약용의 역학으로－)	한국철학논집 53	한국철학사연구회
13	이은호	윤휴의 「홍범(洪範)」 읽기와 그 특징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14	이창일	다산 정약용의 주역 해석방법론 체계(－역리사법(易理四法), 삼역(三易), 「독역요지(讀易要旨)」 18칙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5	이창일	신후담(愼後聃) 『주역』 해석의 특징(－정주(程朱)역학, 성호(星湖)역학, 다산(茶山)역학 등의 해석을 상호비교 하며－)	한국철학논집 52	한국철학사연구회
16	임옥균	야마가 소코[山鹿素行]의 『대학』 해석(－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9	동양철학연구회
17	임옥균	야마가 소코[山鹿素行]의 『중용』 해석(－심성(心性)에 대한 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0	동양철학연구회
18	임재규	오징(吳澄)의 『주역』 해석 방법론	온지논총 51	온지학회
19	임헌규	다산 정약용의 『논어』「학이(學而)」 및 「부지명(不知命)」장 주석에 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69	동양고전학회
20	전병욱	『맹자』「고자(告子)」편의 성선론에 대한 주자의 해석	유교사상문화연구 70	한국유교학회
21	정해왕	정약용 역학의 '재윤지괘(再閏之卦)' 연구	한국민족문화 6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2	최석기	19세기 영남학파의 『중용』 분절설 고찰	동양한문학연구 46	동양한문학회(구 부산한문학회)
23	최석기	조선시대 『중용』 해석의 정자삼분설(程子三分說) 수용양상	한국한문학연구 65	한국한문학회
24	함영대	퇴계 이황 이전의 맹자학 연구	대동한문학 50	대동한문학회
25	함영대	만회(晩悔) 권득기(權得己)의 학술정신과 『맹자참의(孟子僭疑)』	한국사상사학 55	한국사상사학회
26	황인옥	주(朱)·왕(王) 이원적 구조에 의한 하곡의 『중용』 해석	범한철학 86	범한철학회
27	황인옥	『주역』 이해를 통해 본 화담 서경덕의 처세관	철학논총 88	새한철학회

보고서 구성은 먼저 전체 27편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한국 유학자, 중국 유학자, 일본 유학자 논문으로 구별하였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연구 대상 경전별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각 경전별로 의미 있는 논문 8편에 대해 분석을 하고, 2017년 경학 관련 연구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짧은 소견을 제시했다.

2. 인물별 분류

총 27편의 경학 논문 중에서 경전 주석서를 중심으로 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은 23편이다. 한 인물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 중 한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11편, 중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편, 일본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편이다.

1) 한국 유학자

한국 유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11편의 논문 중 가장 많이 다룬 인물은 정약용(丁若鏞)(다산(茶山), 1762~1836)으로 5편의 논문이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조영	『맹자요의(孟子要義)』에 나타난 다산의 경학관 연구	한문고전연구 35	한국한문고전학회 (구 성신한문학회)
2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역학의 성립과정(Ⅲ)(–이익, 신후담의 역학에서 정약용의 역학으로–)	한국철학논집 53	한국철학사연구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이창일	다산 정약용의 주역 해석방법론 체계(–역리사법(易理四法), 삼역(三易), 「독역요지(讀易要旨)」 18칙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임헌규	다산 정약용의 『논어』「학이(學而)」 및 「부지명(不知命)」장 주석에 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69	동양고전학회
5	정해왕	정약용 역학의 '재윤지괘(再閏之卦)' 연구	한국민족문화 6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은 윤휴(尹鑴)(백호(白湖), 1617~1680)이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유곤	『효경』과 『내칙』 해석에 나타난 윤휴의 사친지학(事親之學)의 구조와 성격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이은호	윤휴의 「홍범(洪範)」 읽기와 그 특징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각 1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은 총 9명으로 시대 순으로 나열해 보면 서경덕(徐敬德)(화담(花潭), 1489~1546), 권득기(權得己)(만회(晩悔), 1570~1622), 유형원(柳馨遠)(반계(磻溪), 1622~1673), 정제두(鄭齊斗)(하곡(霞谷), 1649~1736), 신후담(愼後聃)(하빈(河濱), 1702~1761), 백봉래(白鳳來)(구룡재(九龍齋), 1717~1799), 임윤지당(任允摯堂)(1721~1793), 유희(柳僖)(서파(西陂), 1773~1837), 심대윤(沈大允)(석교(石橋), 1806~1872)이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황인옥	『주역』 이해를 통해 본 화담 서경덕의 처세관	철학논총 88	새한철학회
2	함영대	만회(晩悔) 권득기(權得己)의 학술정신과 『맹자참의(孟子僭疑)』	한국사상사학 55	한국사상사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3	김인규	조선 후기 『주례』의 수용과 국가례(國家禮)(–반계 유형원의 국가례(國家禮)와 『주례』의 이념–)	퇴계학논총 29	퇴계학부산연구원
4	황인옥	주(朱) · 왕(王) 이원적 구조에 의한 하곡의 『중용』 해석	범한철학 86	범한철학회
5	이창일	신후담(愼後聃) 『주역』 해석의 특징(–정주(程朱)역학, 성호(星湖)역학, 다산(茶山)역학 등의 해석을 상호비교 하며–)	한국철학논집 52	한국철학사연구회
6	문창호	구룡재 백봉래의 경학 일고(–『대학』과 『중용』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7	김세서리아	임윤지당의 『논어』 이해에 대한 여성철학적 성찰	한국여성철학 28	한국여성철학회
8	김동민	서파(西陂) 유희(柳僖)의 『춘추괄례분류』에 보이는 『춘추』 범례 분류의 특징	한국철학논집 54	한국철학사연구회
9	김동민	심대윤(沈大允) 『춘추사전속전(春秋四傳續傳)』의 탈성리학적 『춘추』 이해	한국철학논집 52	한국철학사연구회

2) 중국 유학자

중국 유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은 5편으로 주희(朱熹)(1130~1200)를 다룬 논문이 4편, 오징(吳澄)(1249~1333)을 다룬 논문이 1편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주자의 『춘추』 주해서에 대한 비판과 변론	양명학 46	한국양명학회
2	김동민	주자의 『춘추』 해석과 그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68	한국유교학회
3	김정각	주희역학에서의 도통에 관한 연구	범한철학 85	범한철학회
4	전병욱	『맹자』「고자(告子)」편의 성선론에 대한 주자의 해석	유교사상문화연구 70	한국유교학회
5	임재규	오징(吳澄)의 『주역』 해석 방법론	온지논총 51	온지학회

3) 일본 유학자

일본 유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은 야마가 소코(山鹿素行, 1622-1685)를 다룬 2편이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옥균	야마가 소코[山鹿素行]의 『대학』 해석(–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9	동양철학연구회
2	임옥균	야마가 소코[山鹿素行]의 『중용』 해석(–심성(心性)에 대한 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0	동양철학연구회

3. 주제별 분류

이 보고서의 다른 분과에서는 주제별 분류의 기준으로 주로 경학 사상, 철학 사상, 교육 사상, 정치 및 경제 사상 등을 삼고 있다. 이 분과에서는 경학 사상이라는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제별 분류 기준을 연구 대상 경전으로 삼고자 한다. 총 27편의 경학 논문 모두가 경전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연구 대상 경전별로 살펴보면 『역경』 관련 논문이 7편으로 가장 많고, 『맹자』 4편, 『중용』 4편, 『춘추』 4편, 『논어』 3편, 『대학』 1편, 『서경』 1편, 『예기』 1편, 『주례』 관련이 1편 있다. 또한 『대학』과 『중용』을 함께 다룬 논문이 1편 있다.

1) 『역경』

『역경』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황인옥	『주역』 이해를 통해 본 화담 서경덕의 처세관	철학논총 88	새한철학회
2	이창일	신후담(愼後聃) 『주역』 해석의 특징(–정주(程朱)역학, 성호(星湖)역학, 다산(茶山)역학 등의 해석을 상호비교 하며–)	한국철학논집 52	한국철학사연구회
3	서근식	성호학파에서 다산 정약용 역학의 성립과정(Ⅲ)(–이익, 신후담의 역학에서 정약용의 역학으로–)	한국철학논집 53	한국철학사연구회
4	이창일	다산 정약용의 주역 해석방법론 체계(–역리사법(易理四法), 삼역(三易), 「독역요지(讀易要旨)」 18칙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5	정해왕	정약용 역학의 '재윤지괘(再閏之卦)' 연구	한국민족문화 6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역경』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정각	주희역학에서의 도통에 관한 연구	범한철학 85	범한철학회
2	임재규	오징(吳澄)의 『주역』 해석 방법론	온지논총 51	온지학회

2) 『맹자』

『맹자』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함영대	퇴계 이황 이전의 맹자학 연구	대동한문학 50	대동한문학회
2	함영대	만회(晩悔) 권득기(權得己)의 학술정신과 『맹자참의(孟子僭疑)』	한국사상사학 55	한국사상사학회
3	김조영	『맹자요의(孟子要義)』에 나타난 다산의 경학관 연구	한문고전연구 35	한국한문고전학회(구 성신한문학회)

『맹자』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전병욱	『맹자』「고자(告子)」편의 성선론에 대한 주자의 해석	유교사상문화연구 70	한국유교학회

3) 『중용』

『중용』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황인옥	주(朱) · 왕(王) 이원적 구조에 의한 하곡의 『중용』 해석	범한철학 86	범한철학회
2	최석기	19세기 영남학파의 『중용』 분절설 고찰	동양한문학연구 46	동양한문학회(구 부산한문학회)
3	최석기	조선시대 『중용』 해석의 정자삼분설(程子三分說) 수용양상	한국한문학연구 65	한국한문학회

『중용』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학 사상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옥균	야마가 소코[山鹿素行]의 『중용』 해석(–심성(心性)에 대한 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0	동양철학연구회

4) 『춘추』

『춘추』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서파(西陂) 유희(柳僖)의 『춘추괄례분류』에 보이는 『춘추』 범례 분류의 특징	한국철학논집 54	한국철학사연구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	김동민	심대윤(沈大允) 『춘추사전속전(春秋四傳續傳)』의 탈성리학적 『춘추』 이해	한국철학논집 52	한국철학사연구회

『춘추』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학 사상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주자의 『춘추』 주해서에 대한 비판과 변론	양명학 46	한국양명학회
2	김동민	주자의 『춘추』 해석과 그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68	한국유교학회

5) 『논어』

『논어』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세서리아	임윤지당의 『논어』 이해에 대한 여성철학적 성찰	한국여성철학 28	한국여성철학회
2	임헌규	다산 정약용의 『논어』「학이(學而)」 및 「부지명(不知命)」장 주석에 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69	동양고전학회

『논어』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용재	제주석(諸註釋)을 통해 본 『논어』 경문(經文)의 해석학적 이해[7-1](「술이(述而)」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9	동양철학연구회

6) 『대학』

『대학』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옥균	야마가 소코[山鹿素行]의 『대학』 해석(–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9	동양철학연구회

7) 『서경』

『서경』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은호	윤휴의 「홍범(洪範)」 읽기와 그 특징	동양철학연구 92	동양철학연구회

8) 『예기』

『예기』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유곤	『효경』과 『내칙』 해석에 나타난 윤휴의 사친지학(事親之學)의 구조와 성격	유학연구 4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9) 『주례』

『주례』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인규	조선 후기 『주례』의 수용과 국가례(國家禮)(–반계 유형원의 국가례(國家禮)와 『주례』의 이념–)	퇴계학논총 29	퇴계학부산연구원

10) 기타

한국 경학과 관련하여 『대학』과 『중용』을 함께 다룬 논문이 1편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문창호	구룡재 백봉래의 경학 일고(-『대학』과 『중용』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3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주요 논문 내용 요약

1) 『역경』 관련

『역경』과 관련해서는 「신후담(愼後聃) 『주역』 해석의 특징(-정주(程朱)역학, 성호(星湖)역학, 다산(茶山)역학 등의 해석을 상호비교 하며-)」(이창일)이 있다. 이 논문의 저자는 『논문』에서 하빈 신후담의 『주역』 해석 방법론의 특징과 조선 역학사에서의 신후담의 위상을 파악하고 있다. 저자는 신후담의 『역경』 해석의 관점이 다산 정약용과 관련이 있으며, 신후담은 『역경』의 전편을 정주학의 틀이 아닌 『역경』의 내재적인 논리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해석한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신후담이 발견한 『역경』의 내재적 논리는 효변론(爻變論)이며, 이는 고경(古經)의 서례(筮例)를 연구하여 발견한 것이라고 파악한다. 사상사적으로 이러한 특징은 성호학파의 『역경』 해석 논리와 연관성이 있지만, 신후담의 독창적인 발견이라고 평가한다. 저자는 이러한 신후담의 논리는 후일 정약용에게서 발견되는데, 신후담과 정약용의 연결 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고경의 연구를 통해서 동일한 『역경』 해석 방법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신후담과 정약용의 『역경』 해석의 공

통점은 권위적인 해석을 묵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역경』을 보려는 탐구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 『맹자』 관련

『맹자』와 관련해서는 「만회(晩悔) 권득기(權得己)의 학술정신과 『맹자참의(孟子僭疑)』」(함영대)가 있다. 이 논문의 저자는 권득기에 대해 선조와 광해군을 거쳐 인조의 시대를 살아간 양심적인 지식인으로서, 철저한 구시(求是)의 학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기존에 파악된 권득기의 현실 인식과 왕정(王政) 사상 및 경학 연구의 측면을 진전시켜서 삶의 지향과 『맹자』 해석의 일단을 파악하고 있다. 반신순리(反身循理)와 구시(求是)를 강조한 권득기는 차선(次善)은 선(善)이 아니라고 여기며, 철저하게 지선(至善)을 목표로 살아간 인물로 평가한다. 시의(時宜)에 입각하되 경장(更張)보다는 준수(遵守)의 입장에서, '준수하여 다스리고, 고제(古制)를 회복시켜 부흥시킨다.'는 상고주의적 논리를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정치적 결단과 사회개혁은 군주의 책무라고 과감하게 지적했지만 군신지의(君臣之義)를 맺었다면 신하의 직분은 벗어날 수 없다는 전통적 명분론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권득기가 필부는 영토나 국민이 없으므로, 현실 정치에서의 능력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어 혁명은 현실화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권득기의 『맹자』 해석의 특징으로 문의(文義), 의리(義理), 사증(事證)을 바탕으로 다각적으로 해석한 점을 들고 있다. 권득기의 이러한 특징은 의리적 해석을 일관되게 관철시킨 주자학적 해석 방법과는 변별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권득기의 이러한 『맹자』 해석의 특

징은 경전의 본의에 다가서려는 의미 있는 시도이며, 설득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권득기의 『맹자참의』의 특징에 대해 주자의 견해에 얽매이지 않고, 상당히 여유롭고 자유롭게 『맹자』를 해석한 것으로 평가한다. 역사적이고 현실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경전 독서를 당대적 실효로 연결시키려는 경세적 시야도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에서 주자학이 교조화 되기 이전에 비판적인 시각을 지닌 학자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경전이 음미될 수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퇴계 이황의 『맹자석의』보다 훨씬 풍부하고, 사계 김장생의 『맹자변의』와 우암 송시열의 『맹자질의의의』에 비해서는 훨씬 자유로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권득기의 『맹자참의』가 비록 충분하게 구비된 주석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권득기에 이르러 조선의 경전 해석이 한결 더 성숙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3) 『중용』 관련

『중용』과 관련해서는 「야마가 소코[山鹿素行]의 『중용』 해석(-심성(心性)에 대한 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임옥균)이 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주자학으로부터 자신이 정립한 성학(聖學)으로 돌아선 소코는 심성을 논하는 것과 성인의 가르침을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보면서 심성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저자는 소코가 성인의 학문이란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성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저자는 소코가 중용의 중과 용을 해석하면서도 "중은 치우치지 않

고 절도에 맞는다는 이름이고", "용은 평생 날마다 쓰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는데, 이는 마음의 미발 상태에서 중을 지킨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일상생활에서 절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용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성(性)에 대한 논의에서 주자와 소코의 가장 큰 차이는 주자는 성을 인의예지라는 도덕 원리로 본 반면에, 소코는 성을 감통하여 아는 인식 능력으로 파악한 점이라고 평가한다. 소코는 이 인식 능력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람에게는 세 등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성을 인식 능력으로 재정의한 소코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주자의 성즉리(性卽理), 본연지성(本然之性), 성선론(性善論)을 비판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소코는 성은 마음의 인식 능력이고, 리(理)는 사물에 있는 이치이며, 그 리를 파악하는 것이 성이므로 리가 바로 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파악한다. 소코가 사람의 인식 능력으로서의 성(性)인 주체와 인식 대상인 만물의 이치라는 객체를 분명하게 나누어 성즉리라는 주자학의 명제를 부정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소코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나누는 주자의 견해에 반대하고, 본연지성이 기질지성이고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이며, 본연지성만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평가한다. 또한 성을 곧 리이자 인의예지로 파악한 주자에게 성선은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명제이지만, 성을 감통하여 아는 것으로 정의하는 소코에게 성은 그 자체로서는 선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대상을 잘 인식하면 훌륭하고 잘 인식하지 못하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파

악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소코가 자신의 성학(聖學)[고학(古學)]을 정립하면서 주자학의 심(心)으로부터 일상생활로 학문의 강조점을 전환하고, 성의 개념을 주자와는 달리 도덕 능력이 아닌 인식 능력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성즉리, 본연지성, 성선설 등 주자학의 기본 명제들을 비판해 나갔다고 평가하고 있다.

4) 『춘추』 관련

『춘추』와 관련해서는 「주자의 『춘추』 주해서에 대한 비판과 변론」(김동민)이 있다. 저자는 이 논문의 목적이 대표적인 『춘추』 주해서에 대한 주자의 평가를 분석함으로써 주자가 제시한 『춘추』 이해의 올바른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주자가 삼전(三傳)과 정이천(程伊川), 호안국(胡安國)의 이론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 각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올바른 주해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파악한다. 주자가 주해서의 기본 역할을 사실 기록과 의리 해석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규정하고, 대표적인 주해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하였다고 평가한다. 또한 저자는 주자가 주해서들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지나친 천착이나 근거 없는 확대 해석을 일삼는다고 판단하고, 그 결과 『춘추』 기록의 이면에 담긴 공자의 뜻이나 『춘추』 대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춘추』의 본의를 왜곡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러한 주자의 작업이 올바른 『춘추』 이해의 방법과 바람직한 춘추학의 방향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학술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5) 『논어』 관련

『논어』와 관련해서는 「임윤지당의 『논어』 이해에 대한 여성철학적 성찰」(김세서리아)이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임윤지당의 『논어』 인용의 특징을 구조적인 면과 내용적인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구조적인 면에서 윤지당이 『논어』의 원문 전체를 표출하지 않고 직접 관련 있는 글자나 부분만 인용하면서 자기 해석을 붙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논어』 인용과 독해의 맥락이 「경설」에 보이는 『대학』이나 『중용』과는 달리 독립된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설」에 들어 있으면서 『논어』 전체를 주석하기 보다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파악한다. 또한 윤지당은 유가 경전 해석에 있어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식을 비판하는데, 이를 통해 텍스트의 열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이에 대해 이제껏 전통 유교 사회에서 여성들이 무엇을 알았고 그것은 남성들의 지식보다 더 가치로운 것인가의 물음보다는 여성이 어떻게 아는지, 여성 지식의 특징은 무엇인지, 여성의 지식이 남성의 지식과 어떤 다른 효과들을 산출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윤지당의 『논어』 인용 방식은 여성도 성인(聖人)이 될 수 있음을 증거 한다는 것과, 삶의 경험으로부터 실재를 바라보면서 나름의 지식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예컨대 『논어』의 〈극기복례(克己復禮)〉, 〈일이관지(一以貫之)〉를 성리학적 이일분수(理一分殊)의 맥락에서 독해하는 속에서 성인과 범인의 동류의식을 확보하고, 이를 여성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논의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미생고〉장을 정직

함이라는 덕목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다루는 속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는 보살핌의 차원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6) 『서경』 관련

『서경』과 관련해서는 「윤휴의 「홍범(洪範)」 읽기와 그 특징」(이은호)이 있다. 이 논문의 저자는 백호 윤휴에 대해 육경(六經)을 중심으로 했던 공자 시대의 경학에 관심을 가졌던 대표적인 경학가로서, 사서(四書)를 위주로 한 조선 성리학의 경계를 탈피하고자 시도했던 선각자로 평가한다. 저자는 윤휴의 『홍범경전통의(洪範經傳通義)』에 대해 『주자어류』 등에 보이는 주자의 경전 읽기를 답습하여 '이경해경(以經解經)'의 전형을 추구하고자 했던 윤휴의 고심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구주(九疇)의 쓰임[용(用)]에 주목하여 제반 경전에서 구주의 용(用)을 수색(搜索)하였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이러한 윤휴의 폭넓고 심도 있는 경전 인용을 통한 홍범의 이해는 기존의 『서집전(書集傳)』 해석의 한계와 단점을 보충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경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7) 『주례』 관련

『주례』와 관련해서는 「조선 후기 『주례』의 수용과 국가례(國家禮)(-반계 유형원의 국가례와 『주례』의 이념-)」(김인규)가 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유형원에 대해 실학의 비조(鼻祖)로서 『반계수록(磻溪隧錄)』이라는 저서를 통해 조선 사회를 『주례』의 이념에 입각해 새롭게 하고자 하였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유형원이 『반계수록』을 저술하게 된 배경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정전제(井田制)가 무너짐으로써 공전

(公田)이 사라지게 되고 사전(私田)만 남게 되었다는데서 출발하게 되었다고 파악한다. 즉, 사전의 확대는 토지 겸병을 심화시키고, 이는 결국 농민의 몰락을 가속화시켜 위기를 초래했다고 본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공전제(公田制)를 통해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일정한 비율로 토지를 나누어 주는 수전권(收田權) 분급을 통해 농민을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한다. 둘째, 진한(秦漢) 이후 법제가 사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제정됨으로써 그 모순이 고쳐지지 않아 폐단이 쌓였다고 본 것으로 평가한다. 셋째, 당시 재야학자와 관료지망생들이 경세(經世)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데 대한 비판인 것으로 평가한다.

저자는 『반계수록』의 철학적 기저는 『주례』의 이념인 공(公) 사상으로, 이러한 공 사상의 관념은 '사(私)→인심(人心)→불선(不善)'과 대비되는 '공(公)→도심(道心)→순선(純善)'의 구도로, 이는 인심도심설의 인성론과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저자는 유형원이 도심을 리(理)로, 인심을 기(氣)로 파악하고, 이를 다시 천리와 인욕으로 연결시켰으며, 리(理)를 물지리(物之理)로서 실리(實理)로 보았으며, 이러한 철학 체계는 『반계수록』의 근간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즉, 유형원은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통해 공전의 확립과 공전제의 시행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바로 리의 존엄성과 실(實)을 현실 속에서 찾는 사상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8) 『대학』과 『중용』의 관계 관련

『대학』과 『중용』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구룡재 백봉래의 경학 일고(-『대학』과 『중용』의 관계를 중심으로-)」(문창호)가 있다. 이 논문의 저

자는 백봉래가 『중용』과 『대학』의 관계가 배응(配應), 체용(體用), 좌우(左右), 상하(上下)가 되어 표(表)이면서 리(裏)이고 리(裏)이면서 표(表)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백봉래는 『중용』의 시중(時中)과 『대학』의 혈구(絜矩), 『대학』의 지선(至善)과 『중용』의 치곡(致曲), 『대학』의 〈기욱장(淇澳章)〉과 『중용』의 〈연어장(鳶魚章)〉을 서로 배응, 체용, 표리의 관계로 규정하고 설명하면서 원중(原中)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한다. 백봉래가 말하는 원중론(原中論)은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바탕으로 한 근원으로서의 『대학』과 중도(中道)로써의 『중용』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한다. 이는 『대학』과 『중용』을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에 연관을 지어 그 구조를 체용관계로 논하면서도, 하도를 본체로 삼고 낙서를 작용으로 삼는 뜻으로 『중용』을 지었고, 낙서를 본체로 삼고 하도를 작용으로 삼는 뜻으로 『대학』을 저술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저자는 백봉래의 경학론에서 주목되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주역』의 괘를 이용한 해석 방식이라고 분석한다. 백봉래가 『중용』과 『대학』의 해석에 『주역』의 괘를 이용하여 풀이한 것은 경서의 체계가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저자는 백봉래가 『중용』의 '범사예즉립(凡事豫則立)'의 '예(豫)'자와 『대학』의 '재항족의(財恒足矣)'의 '항(恒)'자가 『주역』 예괘(豫卦)와 항괘(恒卦)의 정신과 작용으로 파악하여 『중용』의 '예(豫)'자는 『대학』이 예괘의 작용이 되고, 『대학』의 '항(恒)'자는 『중용』이 항괘의 작용이라고 주장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저자는 역리(易理)를 통하여 『대학』과 『중용』의 관계를 일관된 구조로 회통하고자 한 백봉래가 첫째, 원중(原中)의 개념을 도입하여 『대학』

과 『중용』에 접목시켰으며, 둘째, 『대학』과 『중용』을 하도와 낙서에 연관을 지어 그 구조를 체용 관계로 파악하였으며, 셋째, 『주역』의 예괘와 항괘의 원리를 적용하여 『대학』과 『중용』의 표리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백봉래의 세 가지 특징은 조선조 유학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백봉래만의 독창적인 논리 체계이며, 백봉래 경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5. 평가와 전망

앞으로 한국 경학 연구가 지향하고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각 경전별로 경학사가 서술되고, 이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한국 경학사를 서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경학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2017년 경학 연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학 측면에서 기존에 많이 연구 되지 않았던 신후담의 『역경』, 권득기의 『맹자』, 심대윤과 유희의 『춘추』, 임윤지당의 『논어』, 백봉래의 『대학』과 『중용』 등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학자들의 경학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